

## 윤석남 개인전

##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YUN Suknam Solo Exhibition: I'm not a pine tree



윤석남 개인전

Yun Suknam Solo Exhibition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I'm Not a Pine Tree

2013. 10. 16 - 11. 24

Hakgojae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전시명 : 윤석남 개인전: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Yun Suknam Solo Exhibition: I'm not a  
pine tree

일 시 : 2013년 10월16일(수) - 11월24일(일) 40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46점

##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윤석남의 개인전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를 선보인다. 작가는 어머니의 모성과 강인함,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안한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작업들을 통해 억눌려 지내온 모든 여성들을 복권시키고 스스로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모든 사물을 명명함으로써 인위적 의미가 규정되고 분류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보여줄 것이다. 윤석남의 이번 전시는 크게 세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다. 과거 작가가 선보였던 설치 작업의 연작인 <그린 룸>과 <화이트 룸>, 그리고 ‘너와 작업’이다. <그린 룸>과 <화이트 룸>은 학교재갤러리 전시공간에 맞추어 새롭게 제작되었다. 가로,세로 30x30cm로 문양을 낸 한지 커팅과 설치 작업이 함께 소개된다. 이 외에, 너와집에 사용되었던 널판에 직접 인물을 그린 ‘너와 작업’ 4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폐기처분 될 운명이었던 너와는 작가의 손을 통해 또 다른 숨결을 부여 받아 새로운 인물로 탄생했다.

## 2. 전시 구성



그린 룸, 2013, Mixed Media, Variable Size

<그린 룸>에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인간의 행동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자연 속 동식물의 영혼을 달래고자 하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인간은 자연 속 생물의 고유한 언어, 가치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사유하고 파괴하고 마구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린 룸>은 녹색의 한지로 다양한 자연의 의미를 형상화하여 기하학적인 형태까지 오려낸 후 벽에 붙인 한지 작업, 녹색의 테이블, 의자 그리고 바닥의 초록색 빛의 구슬이 함께 하나의 작업으로 구성된다. 작품의 가로, 세로 30cm 한지 커팅은 작가가 직접 문양을 오려 낸 것이다. 테이블과 의자에 그려진 연꽃은 화해, 생명 부활을 상징하며, 자연 회복을 기원하는 제의적 언어가 담겨 있다.



화이트 룸 - 어머니의 뜰, 2013, Mixed Media, Variable Size

<화이트 룸 - 어머니의 뜰>은 작가가 꾸준히 작업해왔던 주제, '어머니'에 관계된 작업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화이트 룸 - 어머니의 뜰>은 지난 2011년 경기도 미술관에서 선보였던 <화이트 룸>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다. 작가는 사람이 죽으면 빛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빛을 흰 색으로 표현해 냈고, <화이트 룸> 작업을 시작했다. 정면의 한지작업은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그려낸 것이다. 작품의 흰색 꽃은 죽은 자들을 애도함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억제했던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표현이다.



너와 25.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2013, Mixed media, 101.5x53.5cm

강원도 깊은 산 속에서 화전민들은 기와를 구하기 힘들었다. 너와는 이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나무로 기와를 대신하여 지붕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생명을 다한 너와는 지붕에서 내려와 폐기처분될 운명이었으나 작가의 손을 통해 새로운 숨결을 받아 인물로 탄생했다. 각각의 너와는 오랜 시간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고유의 형상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너와를 보자마자 작가는 나무의 결을 따라 각각의 인물의 얼굴을 붓으로 옮겼다. 작가는 너와에 나타난 인물들과의 이러한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필연적이라고 전한다.

### 3. 전시 서문

####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윤석남의 자연에 대한 제의(祭儀)적 몸짓

김이순(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소나무’라는 이름은 인간이 소나무에게 부여한 것일 뿐, 정작 소나무는 자신의 이름이 ‘소나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의로 ‘소나무’라고 명명한 사실에 대해, 소나무는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인간은 무엇인가 미지의 것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이름을 붙인다. 명명에 의해 사물은 실체화되고, 사물의 변화무쌍한 생(生)은 단일하게 고정된다. ‘소나무’도 인간의 언어로 마음대로 붙인 이름에 불과할 뿐, ‘소나무’라는 단어가 소나무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소나무를 칭송하고 좋아하지만 정작 소나무와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소나무의 고유한 언어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중심적으로 소나무를 분류하고 명명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인간은 소나무의 주인인양 소나무를 사유화하고 생명까지 앗아가곤 한다.

앞서 <1,025: 사람과 사람 없이>(2008)의 유기견 작업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윤석남은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면서 문명을 발달시켰다고 자부하지만 이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이고 이기적 사고일 뿐이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윤석남의 이번 개인전은 세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그린 룸>이라는 타이틀의 설치작품으로, 제목이 암시하듯 자연을 주제로 한다. <그린 룸>은 이미 발표한 <핑크 룸>, <블루 룸>, <화이트 룸>의 연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듯 작품의 제목에 색 이름을 넣는 것은 그만큼 색이 지닌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린 룸>은 자연의 색인 녹색으로 방 전체가 꾸며져 있다. 녹색 계열의 한지로 나비 같은 곤충이나 꽃과 나무 등의 식물, 학이나 부엉이 같은 새, 물결 등 다양한 자연의 형상을 도형화하여 오려낸 후 벽에 붙인 작업이다. 윤석남이 한지 오리기 작업을 시작한 것은 바리데기 신화를 다룬 <블루 룸>(2010)에서부터였다. 무당들이 굿을 준비할 때 만들고 굿이 끝나면 불태우는 종이 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한지 오리기 작업은 이후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린 <화이트 룸>(2011)으로 이어졌고, 이번 전시에서도 중요한 조형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린 룸>에서는 다양한 녹색조의 도형들로 벽을 채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닥에도 녹색 빛깔의 유리구슬을 깔아 놓아 숲이라는 장소를 암시한다. 간간히 핑크 빛의 유기체적 형상들이 놓여 있는데, 이는 인간의 내면에 도사린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끝이 뾰족하게 표현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핑크 빛 형상들은 매혹적이고 아름답지만, 꼭 그만큼 위험하고 불온하다.

방 한 가운데에는 긴 녹색 테이블이 의자와 함께 놓여 있다. 이 거대한 테이블은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작가가 손수 색칠, 바니쉬 작업, 그리고 사포 질을 20여 차례 반복해서 제작한 것으로 표면이 유리처럼 맑고 아름답다. 테이블과 의자 모두 녹색으로 뒤덮여 있고 연꽃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연꽃은 윤석남이 즐겨 사용하는 모티프로, 불교적인 소재이기도 하지만 민화에서도 길상적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윤석남이 연꽃을 자주 표현하는 이유는 우선 연꽃의 조형미 때문인데, 테이블에 그려진 연꽃은 윤석남의 조형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윤석남은 나희덕 시인의 <사라진 손바닥>이라는 시를 음미한다. 차를 마시는 장소인 테이블 위에 그려진 연꽃은 화해와 생명 부활의 염원을 담고 있다.

녹색 빛으로 꾸며진 <그린 룸>이 자연과 생태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소위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같은 시류에 편승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윤석남이라는 작가가 원래

시류에 연연하는 작가가 아닐뿐더러 이번 개인전의 주제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가는 최근에 작업실을 새로 마련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장소에 건물을 지었다. 산다는 것이 죄라고 했던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동물과 식물은 물론 여타 미물들의 생명을 앗아간다. 윤석남도 작업실을 지으면서 원래의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연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작업실을 지으면서 훼손시켜야 했던 자연에 대해 깊이 성찰한 결과가 바로 <그린 룸>인 것이다. 따라서 <그린 룸>은 작가의 자기 치유적 작업이자 자연에 대한 제의적 행위로서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이전의 유기견 작업과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1,025: 사람과 사람 없이>에서 유기견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무책임한 행위를 들추어냈는데, 여기서 그는 단순한 세대 고발을 넘어 유기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연꽃 등으로 장식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달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기를 기원했다. 마찬가지로 <그린 룸>에서도 인간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음을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기원하는 제의적 의미를 담았다. 유기견 작업에서의 시선을 자연 전체로 확장시켰다고 하겠다.

이번 전시에는 <그린 룸> 이외에도 <화이트 룸 - 어머니의 뜰>이 포함되어 있다. 제목 그대로, 이 작품은 작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첫 개인전을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한 이래 윤석남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관계된 작업을 했는데, 잠시 접어두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번 작업에서 또다시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화이트 룸 - 어머니의 뜰>은 흰색 한지로 어머니의 모습을 도형화한 오리기 작업으로, 2011년 경기도미술관에서 있었던 <화이트 룸>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흰색은 죽음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보여준다. 흔히 죽음을 검은색으로 표현하는데, 윤석남은 인간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이 빛으로만 남게 된다는 믿음 하에 빛을 흰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머니의 모습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인체 이미지들 사이사이로 꽃의 이미지가 끼어 있는데, 그 결과 <화이트 룸 - 어머니의 뜰>은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다.

윤석남의 작품에는 꽃이 자주 등장한다. 연꽃처럼 상징성을 띤 경우도 있지만, 그가 표현하는 여인들의 옷 자체에도 이름 모를 잔잔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때로는 물감으로 때로는 섬세하게 반짝거리는 자개로 표현되는 꽃무늬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표현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조차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억제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화이트 룸 - 어머니의 뜰>에 등장하는 흰색 꽃들은 죽은 자의 영혼에 바쳐진 애도의 꽃이자,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만가(輓歌)이다.

이번 전시 작품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작업은 너와집에 사용되었던 널판에 그려진 50점의 인물상들이다. 윤석남은 나무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폐목을 사용한 작업을 발표한 적이 있는 터라 너와 인물상들이 그렇게 새로운 작업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너와 인물상 한 점 한 점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너와의 고유한 생김새와 어우러진 인물들의 모습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너와집에 사용되는 나무 판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50년쯤 되는 소나무를 쪼개서 만든 널판들을 지붕 삼아 집을 짓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와집 지붕에 얹어져 5년쯤 비바람을 견뎌낸 널판들은 지붕에서 내려지는 즉시 폐기처분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생명을 다해 지붕에서 내려진 너와들이 윤석남의 손에 들어간 건 운명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처음에 붉은 소나무였을 너와들은 비바람 속에서 잿빛으로 변했고, 부드러운 속살은 패인 채 거친 웅이와 나이테의 윤곽만이 남은 너와 조각에서는 처연한 모습마저 느껴진다. 화목으로 쓰였을 낡은 너와들이 윤석남을 만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너와에 인물을 그려 넣기 전에 작가는 너와에 붙어 있던 흙먼지를 털고 닦아내는 지난한 작업을 하면서 너와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작가는 너와들이 이미 각각 자신들의 고유한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작가는 단지 너와 조각에 잠재된 형상들을 끄집어냈을 뿐이다. 오래 전, 알타미라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의 심정이 그랬을까. 너와의 불규칙한 표면의 요철은 어느새 작가가 상상하고 바라는 이미지로 화하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작가의 작업은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제의적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윤석남이 폐목에 그린 인물상을 본 누군가가 우글쭈글하던 피부가 다시 생명을 얻은 듯하다고 표현했듯이. 빛

바래고 쇠잔한 너와들은 작가의 손 작업을 거치면서 생기 넘치는 숨결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인물들은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졌지만 아크릴 물감의 인조적인 느낌 대신 먹으로 그린 듯한 정감을 자아낸다. 이는 물론 작가의 유려한 붓 놀림(그는 항상 모필만을 사용한다)의 결과이지만 오래된 너와가 주는 독특한 질감 덕분이기도 하다.

너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여성이고 남성은 단 한 명뿐이다. 이 여성의 공간에 초대받은 남성 주인공은 바로 '책 읽어주는 남자'다. 운명적으로 사랑한 한 문맹 여성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었던 남자. 사회적인 제도나 법보다도 사랑하는 여인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던 남자. 그 남자는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책을 읽어주고 있다.

윤석남의 작품을 감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문학과 영화를 넘나들면서 우리의 일상사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업함으로써 관객과의 소통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는 데뷔 시절부터 일관되게 스토리텔링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작가로 데뷔한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화단은 단색조의 추상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가 당시 주류 미술 경향이었던 추상적 조형언어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작가 자신이 선택한 조형언어에 대한 신뢰였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놓지 않았으며, 그의 시선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고심한 끝에 선택한 주제를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펼쳐냈으며, 이를 통해 관람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작가의 나이가 70대 후반에 접어들면 작가 스스로 자신의 화업을 정리하고자 하며, 미술사가들은 이러한 작업에 동참하여 작가를 미술사적 흐름 안에 위치시키려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윤석남은 이러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실 그를 특정한 미술사조 안에 위치시키기도 어렵다. 그는 개인전을 열 때마다 주제와 표현 재료는 물론 조형언어를 자유롭게 바꾸면서 여전히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남은 과거의 대가가 아니라 여전히 뜨거운 현장 속의 아티스트다. 윤석남의 다음 이야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가 개인전을 열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떠한 장에서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기대와 호기심을 갖게 되다. 이번 전시 역시 그의 한판 곳을 보는 장이 될 것이다. 물론 단순히 바라만 보는 장이 아니라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 4. 작가 약력

윤석남

1939 만주 출생  
 1984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뉴욕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화성에서 작업

개인전

2013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1 핑크룸 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사람과 사람없이 - 282, 송파구립갤러리 水, 서울  
 2009 부산 아트센터, 부산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8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4 열린화랑, 부산  
 2003 늘어나다, 일민미술관, 서울  
 윤석남전: 늘어나다, 카마쿠라 갤러리, 카마쿠라, 일본  
 1998 빛의 파종, 카마쿠라 갤러리, 카마쿠라, 일본  
 1997 빛의 파종,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아트스페이스서울, 서울; 학교재갤러리, 서울  
 1996 카마쿠라 갤러리, 카마쿠라, 일본  
 조현화랑, 부산  
 1993 어머니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1982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단체전

2013 해인아트프로젝트 2013 - '마음心', 해인사, 합천  
 윤석남, 최인호 전, 갤러리 아쉬, 파주  
 정전60년 특별 기획전 - 백령도 525, 600 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어느 노병의 이야기 - 60년의 기억, 130년의 우정, 런던아시아하우스, 런던  
 인물파노라마,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한국현대미술의 흐름VI - 여성주의, 김해문화의전당, 김해  
 가족이 되고 싶어요 - 반려동물 이야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탐하다 - 추구하다 & 욕망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자연, 동동(童動) - 김재선갤러리 기획전, 라임유치원 전관, 부산  
 2012 우먼+바디 - 한미 여성작가 연합전,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광주문화재단 미디어큐브3, 광주

-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인천 - 테라 갤러시아, 리버풀 비엔날레, 리버풀, 영국  
익산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 익산중앙체육공원, 익산  
숨, 케이씨디에프 갤러리, 서울  
우먼 인-비트윈: 아시아 여성 예술가 1984-2012,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속하거나 혹은 갈망하거나 -10명의 큐레이터들 & 10가지의 미래,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근현대미술기획전 - 여기 사람이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모성 - 한국 미술 속의 어머니, 아시아 미술 속의 어머니,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 거대서사 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인간전 1 - 1980년대 인간 그 이후, 오늘의 동향, 정문규 미술관, 안산  
레지던시 프로그램 2기 입주작가 결과보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1 삶·자연·예술 - 한국미술 100년, 암웨이갤러리, 성남  
창창인생, 경기도미술관, 안산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조각가의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가인 - 동양미술 속의 아름다운 사람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비형식의 논증, 자하미술관, 서울  
코리안 랩소디 -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인천상륙작전 -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0 워킹 맘마미아: 그녀들에게는 모든 곳이 현장이다, 국립여성사전시관, 서울  
한국드로잉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춘추, 학교재갤러리, 서울  
강진 세라돈 아트 프로젝트, 제38회 강진 청자 축제, 강진  
한국현대미술거장전 - 63스카이라트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공동기획특별전, 63스카이라트미술관, 서울  
노란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울  
타임머신, 열갤러리, 서울  
경기미술프로젝트: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컨템퍼러리 10인전, 김재선갤러리, 부산
- 2009 거울아 거울아 - 그림 속 사람들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과천  
루씨와 오렌지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서울  
현대미술의 응시,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개관전,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 2009 평화미술제 - 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새로운 예술의 시작 -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85호 크레인 - 어느 망루의 역사, 평화박물관, 서울
- 2008 언니가 돌아왔다, 경기도 미술관, 안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전: 페미니즘 여성작가 3인 초대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한국 여성주의 작가 3인 초대전, 당진문화원, 당진  
평화공간 공간\*평화 개관 2주년 기념전, 평화박물관, 서울  
이중섭 미술상 20년의 발자취 - 역대 수상작가 20인,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데일리 라이프 인 코리아, 퀸즈갤러리, 방콕  
찾아가는 미술관 - 꿈엔들 잊으리야, 국립현대미술관기획, 페스티벌하우스, 통영  
메모라이즈, 김재선갤러리, 부산

- 2007 경기, 1번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6 여성, 일, 미술,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여자를 밝히다, 종이박물관, 서울  
상, 상의 힘, 고려대학교 박물관 제47회 특별전,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 2005 동방의 신비 - 앙코르와트 기행전,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  
서울옥션특별전: 기생, 서울옥션하우스, 서울  
사람 · 집 · 가족, 제비울미술관, 과천  
광복60주년기념 한국미술 10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성곡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쿨 앤 워, 성곡미술관, 서울
- 2004 집의 숨, 집의 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영암도기문화센터, 영암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바그다드 551km, 제비울미술관, 과천  
일상이 담긴 미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소마미술관 개관 기념 조각전 - 정지와 움직임, 소마미술관, 서울  
구성과 중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 2회 한독 여성작가 교류전: 지겐-서울-지겐-서울, 지켈란트 박물관, 지겐, 독일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금호미술관, 서울  
풍경 보다 & 보다, 성곡미술관, 서울  
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3인의 작가를 통해 본 페미니스트 비전, 한국미술관, 서울  
더 블루, 카마쿠라 갤러리, 카마쿠라, 일본  
경계선상의 것들, 아트앤패브프리젠츠, 도쿄
- 2003 매달리다, 카마쿠라 갤러리, 카마쿠라, 일본  
자연의 속삭임, 제비울미술관, 과천  
기운 나는 이름, 어머니,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우리시대 삶과 해학,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한독 여성 작가전,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전쟁 반대 평화 만들기, 대안공간 풀, 서울  
한국현대조각 특별전: 조각이란 무엇인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2 여성사 전시관 개관전, 국립여성사전시관, 서울  
가족: 상상과 창작전 III, 가스가이 시민문화회관, 가스가이, 일본  
만해 시화(萬海 詩畫), 백담사, 인제  
제2회 여성미술제: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 국립여성사전시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제33회 특별전 -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민족미술 20년, 청주시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
- 2001 행방불명,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가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0 인(人)+간(間): 광주비엔날레 2000,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새천년 특별기획: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호암미술관, 서울  
흑의 축제, 영암 구림마을 도기 문화센터, 영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변화의 요인: 제12회 시드니 비엔날레, 시드니주립미술관, 시드니
- 1999 99 여성미술제: 팔취들의 행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90년대 정황전, 엘렌킴머피 갤러리, 서울

- 코리아+잘라전 - 동북아와 제 3세계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이중섭 미술상 10년의 발자취,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공원 속의 미술과 사람 & 이벤트, 여의도 시민공원, 서울  
현실 바로보기, 응전갤러리, 서울  
몽유금강, 일민미술관, 서울  
1999년의 자화상, 아트 엠엔씨 갤러리퓨전, 서울  
극장을 찾는 사람들 - 가상공간, 국립중앙극장, 서울
- 1998 타이페이 비엔날레: 염원의 장, 타이페이미술관, 타이페이  
김스 아울렛 열린 미술제: 반복·일탈, 김스 아울렛, 성남  
한국 현대미술 해외전,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형태로, 조세로프 갤러리, 하트포드대학교, 하트포드, 미국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건립기념전, 나눔의 집, 광주, 경기도  
서울올림픽 10주년 기념 야외조각 심포지엄 - 자연+환경+사람, 올림픽공원, 서울
- 1997 우리시대의 초상 - 아버지, 성곡미술관, 서울  
강 - 민족미술 협의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베르수스 III, 벨란 현대 미술센터, 토리노, 이탈리아
- 1996 수원화성 축조 200주년 기념 환경미술전, 수원 화성, 수원  
90년대의 한국미술 - 등신대의 이야기,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도쿄; 국립국제미술관, 오사카  
제2회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퀸즈랜드 아트갤러리,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  
전통/긴장, 아시아 소사이어티 센터, 뉴욕  
한국모더니즘의 전개 - 근대의 초극, 금호미술관, 서울  
인간에 대한 해석, 사비나미술관, 서울  
민족미술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미술 속의 한국현대사 인물전, 노화랑, 서울
- 1995 호랑이의 꼬리,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특별전, 베니스  
제6회 작은 조각 트리엔날레: 유럽-동아시아, 슈드위스트 엘비 포럼, 슈투트가르트, 독일  
100명의 자화상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짜, 아트선재센터, 서울  
여성·역사 새롭게 보기 혹은 넘어서기, 가람화랑, 부산  
한국미술 `95 질·량·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역사 50년전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프리미티브즘 1995, 모란미술관, 남양주  
여성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회화전, 중국미술관, 베이징  
한국현대조각의 오늘, 종로갤러리, 서울  
우리 시대의 거울보기, 동아갤러리, 서울  
자존의 길, 금호미술관, 서울
- 1994 기술, 정보, 환경, 대전 엑스포, 대전  
동학농민혁명 백 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민중미술 15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여성, 그 다름과 힘, 한국미술관, 서울
- 1993 태평양을 넘어서, 퀸즈미술관, 뉴욕; 금호미술관, 서울  
개관전, 박영덕 화랑, 서울

- 개관기념전, 코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현대미술전, 그림마당 민, 서울  
허스토리II, 바탕골 미술관, 서울  
1992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 민, 서울  
1988 여성 해방시와 그림의 만남, 그림마당 민, 서울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 민, 서울  
1987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 민, 서울  
1986 반에서 하나로, 그림마당 민, 서울  
1985 시월 모임전, 관훈갤러리, 서울

## 수상

- 2007 제4회 고정희상, (사)또하나의문화, 서울  
1997 국무총리상, 서울  
1996 제8회 이중섭 미술상, 조선일보사, 서울

##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퀸즈랜드 아트 갤러리, 브리스번, 오스트레일리아  
후쿠오카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벨란 미술협회, 토리노, 이탈리아  
미에 현립미술관, 미에, 일본  
타이페이 미술관, 타이페이  
올림픽공원, 서울  
나눔의 집, 광주, 경기도  
일민미술관, 서울  
쌈지아트스페이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국립여성사박물관, 서울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  
금호미술관, 서울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도치기 현립미술관, 도치기, 일본  
도쿠지마 현립미술관, 도쿠지마, 일본  
아르코미술관, 서울  
경기도미술관, 안산